



(c) 하우스텐보스/J-17296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 한국의 교류도시 파주시, 부산 서구

사세보시

사세보시(佐世保市)는 규슈 나가사키현(長崎県)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인구는 약 25만 명이다. 1860년대 후반까지는 농어촌이었지만 1889년 구(旧) 해군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진수부(鎭守府)가 설치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산업면에서 보면 시내에 미해군 기지와 해상자위대가 소재함으로써 관련산업인 조선업이 발전했지만 현재는 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관광면에서는 일본 최대급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와 208개 섬들이 늘어서 풍광이 수려한 '사이카이국립공원 구주쿠시마(西海国立公園九十九島)'와 미해군의 레시피를 사세보식으로 재해석한 '사세보 버거(佐世保バーガー)', 일본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도라후구(とらふぐ, 북어의 일종)' 등의 특산물이 유명해, 일본 국내외에서 연간 약 580

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다. 2015년 4월 사세보항에 국제터미널이 들어서면서 해외의 크루즈선이 다수 입항하여 항구 주변도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세보시와 자매도시 파주시의 교류

사세보시와 파주시의 교류는 2007년 10월 파주시의 자매도시결연 제안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세보시와 파주시는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시민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관광' '거리 조성' 등의 공통점이 있어 2008년 11월 6일 '국제친선도시' 제휴를 맺었고, 교류 5주년을 맞은 2013년 11월 5일 '자매도시' 결연을 했다.

결연 이후에는 행정 및 의회 간 교류를 시작으로 청소년교류사업이나 시민단체의 상호 파견 및 문화단체 교류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통해 두 시의 우호와 인연을 다져 왔다.

특히 청소년 교류는 2009년부터 사세보시와 파주시 중학생이 상호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이문화를 경험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파주시와 사세보시의 직원(5명 정도)이 상호 간에 거리 조성 및 시정 운영, 각종 시책 등을 배우는 단기(4일간) 상호파견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두 시의 직원 1명씩을 상호 간에 장기연수(1년)로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다지고 시 직원의 국제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단체 교류는 사세보시의 '요사코이 사세보 축제(YOSAKOI させぼ祭り)'에 파주시의 '태권도 연무단'이 출연하고, 반대로 파주시의 '파주 장단콩축제'에 사세보시의 요사코이팀이 출연하는 등 많은 시민과의 만남은 물론 매우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두 시가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세보시와 국제친선도시 부산광역시 서구와의 교류

부산광역시 서구와의 교류는 2012년 5월 서구로부터 두 시의 바다와 항구 등 공통점을 살린 교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2013년 8월 2일 국제친선도시 제휴를 맺었다. 제휴 이후에는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행정 및 의회 간 교류를 비롯해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가 방문해 사세보 시내 자치회와 의견 교환 및 시찰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거리 조성을 서로에게 배우는 바람직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 시 직원을 상호파견하는 단기연수에





서는 서구 직원이 사세보시를 방문해 YOSAKOI 사세보 축제와 수산시장을 시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사세보시 직원이 서구를 방문할 때는 수산시장을 비롯해 송도 해수욕장의 해상산책로 등을 시찰하고 관광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행정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추진을 도모했다.

서구는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어 두 시의 수산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

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항구 도시 교류의 공통점을 살린 상호 교류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류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파주시와 바다에 인접한 부산광역시 서구라는 각각의 특색을 가진 두 도시와의 교류는 사세보 시에게 한국을 보다 다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세보시는 일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한국과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운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행정 뿐 아니라 시민 차원의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두 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문의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기획부 국제정책과

TEL : +81-956-24-1111(ex 3261-3262)

+81-956-25-9647

FAX : +81-956-37-6134

E-mail: koksai@city.sasebo.lg.jp

(집필: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협력: CLAIR, Seoul)